

때론 독주로 때론 협연으로... 비에티, 바롤로 크뤼의 향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와이너리 비에티의 우르스 페터 수출 총괄이사가 바롤로 크뤼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라셀라

바롤로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위치한 와인 산지다.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든 강건하면서도 우아한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사실 바롤로는 실제하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었지만 여기서 사보이왕에게 와인을 대접하면서 이 지역 와인이 바롤로로 통칭됐다. 하나로 묶였지만 토양과 미세 기후가 마을마다 제각각이고, 양조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롤로 와인이다. 바롤로에 크뤼급 포도밭 개념으로 각각의 개성을 지닌 싱글 빈야드만 무려 181곳이다.

와이너리 비에티의 우르스 페터 수출 총괄이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비에티는 1961년에 크뤼급의 특정한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으로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피에몬테 최초의 싱글 빈야드 와인"이라며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서 직접 포도를 재배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토착품종과 테루아에 집중해 투자를 늘린 것까지 피에몬테에서 선구자적 정체성이 가진 곳이 바로 비에티"라고 강조했다.

비에티는 현재 85헥타르의 포도밭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바롤로에서 단일 생산자 기준으로는 가장 넓다. 마을 단위로 보면 바롤로 지역 11개 중 9개 마을에서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싱글 빈야드 바롤로 크뤼를 생산하는 몇 안되는 생산자다.

페터 이사는 비에티의 와인 양조를 음악에 비유했다. 싱글 빈야드 각각 하나의 악기가 되어 모두가 협연하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지만 개성이 두드러진 크뤼는 솔로리스트로 싱글 빈야드 바롤로로 내놓는다.

각 싱글 빈야드의 솔로 연주에 앞서 협주를 먼저 들어보자.

'비에티바롤로카스틸리오네'는 27개의 싱글빈야드를 블렌딩했는데 작은 구



(왼쪽부터)티모라소 데르토나 2021, 바르베라 다스티 라 크레나 2019, 바롤로 카스틸리오네 2020,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 2020,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 2020,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 2020,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 2020, 바롤로 크뤼 라베라 2020,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 2020. /안상미 기자

획인 파셀로 치면 47곳이 담겼다. 구획별로 나눠 양조하면서 반복적인 테이스팅으로 매년 비에티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만든다. 잘 익은 과실과 함께 땅에서 느껴지는 흙과 미네랄 향이 인상적이다.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린 솔로 리스트의 차례다.

먼저 바롤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와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다. 부르나테와 체레퀴오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토양도 같다. 부르나테는 좀 더 따뜻한 남향으로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는 붉은 과실과 제비꽃, 감초향이 복합적이다. 체레퀴오는 남동향이다.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는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허브향이 인상적이다.

프랑스 부르그뉴에 빗대면 부르나테는 '상블뤼지니', 체레퀴오는 '뤼생조르주' 스타일이다.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와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는 바롤로 동부에서 산맥을 사이에 두고 갈렸다.

가파른 절벽 지형에서 만들어진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는 검붉은 과실과 함께 감초, 허브향이 올라오며, 입안에서는 극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는 아로마부터 농축되고 힘이 있었으며, 입 안에서는 벨벳 같은 질감으로 여운이 길게 남는다.

마지막 비교는 '바롤로 크뤼 라베라'와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다. 바롤로 지역에서 라베라가 남쪽 끝이라면 몬빌

리에로는 북쪽 끝에 위치했다. 라베라는 남쪽이지만 해발고도가 480m로 높다보니 비에티의 싱글 빈야드 가운데 가장 서늘해 단단하면서 산도가 돌보일 수 있다. 바롤로 크뤼 라베라는 농축된 과실미와 구조감, 산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허브향도 인상적이었다.

몬빌리에로는 우아한 타닌감으로 바롤로의 부르그뉴로 불리는 곳이다.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는 딸기와 체리 등 붉은 과실과 함께 말린 장미향과 흰 후추 등의 아로마가 복합적이며, 테루아를 그대로 반영하듯 부드러운 타닌이 길게 이어졌다.

선보인 바롤로 와인은 모두 2020 빈티지다. 2020년이라면 팬데믹으로 사람에게서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포도재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순화하고 무난한 해였다. 보통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싱글빈야드 크뤼급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시음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빈티지다. 이번 한국 방문은 바롤로 와인과 한식의 궁합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같이 한 메뉴는 인삼기장죽과 전, 잡채, 등갈비찜 등이다.

그는 "보통 이탈리아 와인은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 음식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좋은 와인은 좋은 음식과 어울린다는 것이 더 맞다"며 "섬세한 바롤로 와인과 자극적이지 않은 전통 한식이 두루 잘 어울렸다"고 평가했다. /smahn1@metroso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여름 시즌 신규 굿즈 라인업 공개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7월 여름 시즌 개봉 영화 중 5편을 선별하여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굿즈들을 공개했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다. 방학을 맞아 '도라에몽'의 휴식 패턴에 맞춘 9종 랜덤 피규어 굿즈를 선보였다.

두 번째, 부동의 인기 시리즈 '명탐정 코난'의 28번째 극장판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은 가네임택 디자인의 키링과 스페셜 입체카드를 한 세트로 단독 제작하였고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키링 콤보' 구성으로도 판매한다.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을 다룬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주요 장면을 삽입한 마그넷 세트

다. 총 5가지 디자인 중 2종 랜덤으로 담겨있는 길은 사로잡으며 팝콘,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킹 오브 킹스 마그넷 콤보'도 출시한다.

네 번째,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총출동하는 인기 IP '베베핀'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 개봉을 기념한 봉제인형 네임택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속 등장하는 도깨비 '비형'을 봉제인형 소재의 키링으로 제작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영화 '전지적 독자시점'의 포스터 래핑 음료컵과 팝콘, 비형 키링을 세트 제작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 콤보'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박스, 리클라이너·LED 등 특별관 콘텐츠 강화

메가박스가 변화하는 관람 트렌드에 맞춰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극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의 변화를 추진한다.

극장 경험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메가박스는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타입의 특별관을 강화하고 있다. 메가박스 대표 플래그십 지

점인 코엑스점은 25주년을 맞아 전관을 특별관으로 리뉴얼 하고, 관객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신규 특별관 '리클라이너'와 'MEGA | LED'를 도입했다.

메가박스는 관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극장에 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관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주말은 책과 함께

'쓰고 싶은'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

'책과 우연들'은 한국 SF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초엽의 첫 에세이다. 작가는 이 책을 "읽기 여정을 되짚어가며 그 안에서 '쓰고 싶은' 나를 발견해가는 탐험의 기록"이라고 소개한다. 다양한 독서 경험을 담은 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파트는 '서평, 비평, 그리고 리뷰'다.

저자는 서평을 쓰는 게 어려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지금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리뷰, 비평, 해설 의뢰를 거절함으로써 안전한 '무(無)서평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서평을 꺼리는 이유로 ▲오독에 대한 두려움 ▲비평적 거리 두기의 어려움 ▲서평 목적에 대한 혼란스러움 크게 세 가지를 든다. 그중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의외였다. 필자가 꼽는 독서의 즐거움 중 하나가 '내 멋대로 읽는 재미'여서다.

저자는 "정확히는 오독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책을 잘못 읽거나 이해하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니 그 자체로는 겁낼 것이 없지만, 오독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고 털어놓는다. 세상에 과연 오독이라는 게 존재할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과 가치관도 제각각이다. 그런 독자들이 하나의 책을 똑같이 이해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100만명이 본 영화나 책에서 100만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가 역시 과거에는 자신의 소설이 의도대로



책과 우연들
김초엽 지음/열린원

읽히지 않는 상황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내가 잘못 쓴 것인지 독자들이 잘못 읽은 것인지, 의도를 더 드러내야 하는지 혹은 숨겨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 머리가 아팠다"고.

수많은 서평을 읽으며 그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소통의 수단으로서 책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성이 바로 책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자는 "나는 종종 서평을 읽으며 나도 몰랐던 내 소설의 의미를 발견한다"면서 "그것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 소설에 내재돼 있고, 누군가 발견하기 전 그 의미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평평한 표면 뒤에 그저 잠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29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캐나다 ACT, 日세븐일레븐 인수 제안 철회... 주가 10% ↓ /사진 뉴시스
▲EU·러시아,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가자 봉쇄 규탄

▲미국 6월 제조업 생산 0.1% ↑ '보합'... "고관세 여파 계속"
▲트럼프 "일본과는 서한대로" 압박 직후... 日관세자료, 美상무와 통화

▲일본 6월 무역수지 1.4조원 흑자·30.8% ↓... "대미수출 3개월째 감소"
▲일본 방위백서 '중국 위협' 표현에... 中, 日 공사 '초치'